<書 評>

Language and Style.
By Stephen Ullmann. Pp. 270
Oxford: Basil Blackwell, 1964.

李 廷 玟

이 책은 Stephen Ullmann 自身이 編輯責任을 맡고 있는 Language and Style Series의 맨 첫 권으로서, 머릿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Ullmann이 지난 여러 해 사이에 쓴 11 편의 論文을 엮어 놓은 것이다.

Ullmann은 앞서 ① *Principles of Semantics*(1957 제 2 판), ②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1962)을 통해 意味論의 體系를 確立하고 이를 應用하여 文體論 方面에도 業績을 쌓아 ③ *Style in the French Novel*(1957), ④ *The Image in the Fench Novel* (1960)을 내놓았거니와 이 책은 바로 ①, ②와 ③, ④를 이어 주는 橋樑的 役割과 나아가 綜合化의 구실을 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Ullmann의 별다른 새로운 理論의 展開는 찾아 볼 수 없고 오리엔테이션을 爲主로 한 감도 없지 않지만 그의 平素 持論의 알맹이들이 要領있게 整理되어 있다.

全篇이 테마에 따라
第一篇 : 意味의 問題(1~5 章)
第二篇 : 文體의 問題(6~9 章)
第三篇 : 言語와 思考(10~11 章)

로 나뉘고 各篇의 첫 章은 해당분야의 概括로 시작되고 있는데 각각 다른 機會에 쓰인 論文들을 한데 뭉뚱그림에 있어 言語學과 文體論의 紐帶를 強調하려는 編纂意圖에 맞도록 全體的으로 有機的인 統一을 주려고 애써 손질한 흔적이 역력하다.

Ullmann은 言語學이 일반적으로 形式主義的인 偏向에 빠짐을 憂慮하고 어떻게하면 人文的인 內容을 잃지 않고(p. 16), humane하고 artistic한 面을 強化할 수 있을까(p. 131) 腐心하고 있으며, 특히 Bréal의 *Essai de sémantique*가 처음 나왔을 때 詩人 Valéry가 크게 경탄하여 書評을 썼던 것처럼 意味論이 文學에 자극을 줄 수 있게 되기를 念願하고 있는데(p. 49), 이러한 著者의 意向에 전적으로 同意할 수 있으나 方法論과 硏究對象은 좀 더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文學批評을 Marx 影響下의 社會的 方向과 Freud 影響下의 心理的 方向 및 Saussure 影響下의 言語(構造)的 方向으로 거칠게 나눌 수도 있다고 하면[1] 言語의 美的 效果를 主로 探究하는 文體論이 指向해야 할 길은 거의 분명해지고, 이런 점에서 Ullmann은 영향

[1] 批評方法의 여러 類型에 관해서는 Stanley E. Hyman, *The Armed Vision* (New York, 1955) 參照.

력을 미칠 수 있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llmann은 言語學의 下位體系를 設定함에 있어 意味論을 語彙論과 統辭論 쪽으로 兩分해놓고서도[2] 자신의 연구는 意味의 定義(제 2 장)에서 'semantic universal'(제 5 장)의 고찰에 이르기까지 前者의 意味論에 局限하고 있음은 著者가 自認하는 바로서, 統辭論쪽의 意味論은 變形-生成文法에 발맞추어 새로이 일어나고 있는 意味論에 機先을 빼앗기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文體문제편에서는 文體가 文章을 중심으로하여 고려되는 까닭도 있겠지만, 音韻·形態·統辭·作品構造의 각 level에 따라 두루 言語 理論을 적용하여 고찰하려 한 配慮가 보인다. 著者는 주로 佛文學 그 중에도 佛小說을 대상으로하여 자기의 文體論을 폈기 때문에 여기서도 佛語作品例에 치우치고 있다. 國語를 달리할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앞으로 比較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各 章別로 一瞥키로 한다.

第 1 章 Semantics at the Cross-Roads

Bréal이 1883년 言語의 意味에 관한 學問을 따로 la sémantique라고 부를 것을 提議한 이래 주로 意味變化의 硏究로 출발한 意味論은 一般言語學의 急激한 發展 앞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음을 告白하고 있다. 言語學에 'Copernicus的 轉回'를 가져온 Saussure이후의 構造主義理論은 "syntax에까지 影響을 주어 近年에는 變形文法이라는 전혀 새롭고도 前途有望한 技術을 낳게 했다(p. 5)"[3]고 지적하고 意味論에도 몇 갈래 構造的 硏究가 擡頭되었다고 그 方向을 더듬어 提示하고 있다. ① 單語의 頻度와 그 밖의 語彙的 特徵을 統計로 分析하는 統計的 方法(例 : Zipf의 公式) ② 各 言語가 지니고 있는 特異한 構造的 傾向을 有緣性등 여러 觀點에서 고찰하는 'idiomatology' 〔例: glove(英), gant(佛) vs. Handschuh(獨)('hand'+'shoe')〕 ③ associative field와 conceptual spheres에 의해 語群을 다루고 한 言語의 全體語彙를 槪念別로 分類하는 등 語彙構造를 構造的으로 硏究하는 方法. 한편 Fodor-Katz의 理論도 structural semantics의 別種으로 보아넘긴 듯 하여(p. 12 脚註) 意味分析에 있어서의 構造에 대한 보다 鮮明한 槪念規定이 아쉽다. 물론 著者가 Saussure의 系統을 따르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第 2 章 The Concept of Meaning in Linguistics

意味論의 重要問題가 되는 意味의 定義方法을 Ogden-Richards의 '基本三角形'에 기초를 둔 分析的 方法과 Wittgenstein의 *Philosophical Investigations*에 나타난 運用的(operational)方法의 두 主流로 나누어 強弱點을 각각 檢討하고 있다. Ullmann 자신은 基本三角形中에서 referent (thing)를 言語硏究와 無關하다하여 除去하고 意味는 "name과 sense 사이

[2] Ullmann, *Principles*, p. 38 參照.

[3] 變形文法에 대한 Ullmann의 최초이자 단 한번의 言及으로서, 기대를 걸면서도 이를 理論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의 技術로 본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의 相互·可逆的 關係"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thing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점에는 論議의 餘地가 있을 듯하며[4] sense가 거머쥘 수 없는 mental entity라는 antimentalist의 攻駁에 대해서는 意味의 客觀化를 試圖한 Osgood-Suci方法의 發展에 기대를 걸고있는 정도다. 現代言語學 理論에 더 어울리는 것은 運用的 定義로서 言語를 Gestalt로 보는 見解, context의 重視, substitute에 의한 意味分別 등 長點을 지녀 앞으로 이에 立脚한 言語意味論의 體系化도 바라고 있다.

第 3 章 Semantics and Etymology

構造主義方法을 導入하여 進境을 보인 意味論은 言語學의 歷史오랜 分野인 語源論에 寄與함을 보이고 있다. 著者는 歷史的·記述的 方法의 峻別을 이에 적용하여 單語의 系統을 찾는 전통적인 語源論外에, 形態 意味 또는 兩面의 聯想網을 다루는 靜的(共時的)語源論에의 指向을 提議하고 있는데 後者와 共時的意味論과의 限界를 어디에 둘지 言及이 없다. 語源論은 '聯想場'등의 理論을 援用하여, 종래의 方法만으로 저지르기 쉽던 誤謬를 막고 語源問題를 解決 說明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컨대 Old Norse에서 내려온 英語의 名詞 boon은 '부탁'의 뜻이었으나 현재는 '고마운 일'이 되어 옛 뜻에서 새 뜻으로 직접 쉽사리 넘어 왔을 듯 하지만 佛語 bon의 英語形態인 同音異義 形容詞 boon과의 混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個別的인 要素에 매이지 않고 그 要素를 둘러싼 聯想場內의 모든 要素를 고려에 넣을 것이 요구된다. 그 밖에 意味論이 語源과 密接한 單語의 有緣性을 支配하는 要因을 分析하는 데에 寄與하는 面을 作品에서 例를 들어 밝히고 있다.

第 4 章 Descriptive and Historical Methods in Semantics

Ullmann은 意味現象 가운데에 記述的·歷史的 方法을 엄격히 나누어 다룰 類型과 두 方法을 신중히 結合시켜 다룰 類型이 있다고 보고 있다. 民間語源, 有緣性, 喚情的·喚起的効果 및 多義語, 同音語의 경우는 記述的·歷史的 資料를 峻別해야하나 同音語 사이의 충돌 및 聯想에 따른 意味變化 등의 경우에는 두 方法의 結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음식 일반을 뜻하던 佛語의 viande가 'meat'의 뜻으로 좁아졌는데 이는 단순한 意味縮少의 현상이라기보다 聯想語 chair가 'meat'의 뜻으로 쓰이지 않게 된 데 원인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chair와 chère의 同音語의 충돌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다. 이때 viande-chair의 聯想과 chair-chère의 충돌은 共時的 事實이다. 또한 'lexical fields'의 硏究에는 두 方法의 結合이 緊要한데 이는 이 理論이 個個要素의 進化를 좇기보다 그 field全體와 그 價値體系의 變貌를 追跡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Trier의 例를 끌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結合이라해도 두루뭉수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어서 Saussure의 峻別주장을 뒤엎는 입장이 아니다. 汎時的 意味論의 可能性도 打診하고 있다.

---

[4] H.G. Lunt (ed.), *Proceedings of the Ninth Internatinal Congress of Linguistics* (The Hague, 1964)에 실린 Robert L. Allen의 'The Structure of Meaning' 參照.

第 5 章 Semantic Universals

言語學이 目標로 삼고 있는 language universals의 追求는 形式面보다 意味面에서는 더욱 힘들고, universal의 基準問題[5]도 있지만 Ullmann은 우선 모든 言語는 母音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unrestricted universals뿐 아니라 統計上의 蓋然性을 가진 現象의 一般化까지를 universal로 잡고, synchronic semantic universal로서 透明·不透明語(有緣性)의 分布, 特殊·一般語辭의 分布(例: 獨語의 gehen, reiten, fahren등이 佛語에서 한 包抱的인 동사 aller로 표현된다는 것인데 이 觀察의 信憑性이 疑心스럽다), 類義語, 多義語, 同音語의 現象을, 그리고 diachronic semantic universal로서 metaphor,[6] 意味의 擴大·縮少, taboo등의 過程을 들면서 이들은 statistical universal 내지 그 以前에 不過하므로 이에 대하여 各國語를 망라한 대규모의 硏究와 통계적 뒷받침이 있어야할 것을 提議 하고 있다. 이러한 努力은 또한 semantic typology에 그 基準을 마련할 것으로 著者는 보고 있다. 그러나 表面的인 統計보다 深部的인 問題의 解決 없이는 별로 樂觀할 일이 못 된다.

그는 또 어느 言語에나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事物을 가리키는 'lexical constants,' 그리고 lexical fields 및 全體語彙上의 槪念分類등 세 段階로 나누어 語彙構造의 universal tendency를 들고 있다. 결국 著者는 자신의 意味論體系에서 다룬 거의 모든 問題를 universal의 考察에 動員한 셈이 되는데, 이는 意味論 자체의 目標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第 6 章 New Bearings in Stylistics

文體論은 言語學과 文學批評의 양쪽에 다리를 걸쳐 그 硏究에 藝術的인 感受性과 學究的인 資質의 兼備를 요구하면서 特定言語의 文體論的 資源을 探究하는 方向과 各作家의 文體를 硏究하는 두 方向으로 發展하여 왔음을 前提하고 있다. Bally가 개척한 前者의 分野는 言語의 純然한 指示的·傳達的 面을 超越한 情感的 聯想, 強調, 리듬, 調和, 美音과 喚起的 要素등 expressiveness를 위한 資源을 찾아내는 作業임을 밝히고 expressive device의 한 例로서 顚倒法(inversion)을 들어 그것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suspense, pathos, finality 또는 irony등 効果와 價値를 現代佛語로 된 作品에서 實例를 들어 分析하고 있다. 또한 特殊한 環境이나 文體 (文語·口語·俗語등)와의 聯關下에 文體論的 効果를 얻는 evocative device를 音韻, 語彙, 統辭의 各 level에서 考察, 예컨대 佛語에서 subjonctif imparfait의 사용은 衒學的이고 假飾的인 냄새를 풍겨 몰락한 지식계급의 사회배경을 喚起시켜주는 status symbol이 되고 따라 作品構造에 한몫을 한다는 등, 그 價値를 例證하고 있다. 이와같은 判斷이 얼마만큼의 妥當性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느냐는 問題로 남을 것이다.

一般言語學의 'idiolect' 槪念에 도움을 입고 있는 作家個人의 文體에 관한 연구의 방법으로

---

[5] J.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MIT, 1963)中 Greenberg, Osgood, Jenkins의 'Memorandom Concerning Language Universals'와 Hockett의 'The Problem of Universals in Language' 參照. 여기 Ullmann의 本論文도 收錄.

[6] 前揭書中 Charles E. Osgood의 'Universals and Psycholinguistics' 參照.

는 ① 統計的 方法 ② 心理的 方法 ③ 機能的 方法을 들고 있다. ①에서는 숫자만능주의의 虛點을 지적, 有効할 수 있는 제한된 方面을 제시하고 ②에서는 Freud의 영향을 받은 Spitzer가 作品에서 反覆的으로 나타나는 어떤 文體的 特性을 잡아 心理學的 해석을 가하고 作家의 영혼에 內在하는 이와 同一한 要因을 가리키는 증거를 더욱 찾아낸다는 과정을 中心으로하여 展開한 'philological circle'方法과 그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Spitzer 자신도 종국에는 心理的 方法이 非個性的 作法의 作家에게는 적용이 잘 안되며, 일종의 'biographical fallacy'에 불과하다는 결론아래 機能的 方法에 가까운 「構造的」方法으로 轉向하게 되는 경위를 보여주고 있다. ③은 文體를 作品構造上에서 스스로 뚜렷한 구실을 하는 作品의 必須的 構成要素로 보고, 주어진 제한된 길이의 텍스트 안에서 文體要素의 作用을 관찰하는 'micro-context'(Riffaterre의 用語)의 使用方法과, 한 作品전체, 한 作家, 나아가서는 한 時代, 한 文學 運動 전반에 나타나는 支配的인 傾向을 조사하고 各 device의 역할을 評價하는 'macro-context'의 使用方法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言語學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機能的 方法으로서, Ullmann 자신도 이 방법에 立脚하고 있으나, 分析對象이 되는 作品의 性格에 따라 方法을 달리 하거나 또는 複合的인 方法으로 長點들을 취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統計的方法은 獨自的인 方法으로 成立될 수 있는지 의문되고 오히려 補助的인 구실로 그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하튼 著者는 文體論이 점차 "새로운 修辭學"으로서의 地位를 차지해가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7]

第 7 章 Choice and Expressiveness in Style

둘 이상의 'stylistic variants'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내는 가능성을 뜻하는 choice는 expressiveness와 緊密히 맺어져 文體를 빚어 내는데, 反覆的인 imagery나 leit-motivs에서 보는 바와 같은 意識的인 choice와 即發的으로 이루어지는 無意識的인 것이 있음을 말하고 le style indirect libre[8]의 例를 들어 choice의 美學的 意義를, 또한 Camus가 *L'Etranger*에서 一貫하여 선택한 passé composé가 주는 無氣力하고 매듭없는 印象—'不條理人의 心理'—(cf. Sartre's *Situation I*)의 例를 들어 choice의 含縮性을 풀이하고 있다. 著者는 作家가 選擇에 있어 言語의 expressive resources나 또는 與件下에 주어진 alternatives의 數와 性質에 의해 制約받게 됨을 tu와 vous의 binary choice의 경우를 들어 詳述하고, 想像力에 의해 선택의 가능성이 無限한 metaphor등 比喩的 表現에도 image를 쓰는 사람의 personality에 맞춰야 한다는 등 스스로 制約이 따름은 물론 最善의 것은 사실상 選擇의 餘地를 허락치 않는다는 逆說的인 立場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뒤끝을 얼버무리고 있다.

第 8 章 The Reconstruction of Stylistic Values

Style이란 本質的으로 norm으로부터의 deviation이라는 Valéry의 見解에 贊同하거나 않거나 간에 作家의 言語的 技倆과 獨創性을 探知하려면 우선 이를 보다 넓은 當代言語慣

[7] René Welleck, Austin Warren의 *Theory of Literature* 제 14장 'Style and Stylistics' 參照. 文體論과 修辭學의 차이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8] Ullmann, *Style in the French Novel* 제 2장 參照.

用의 背景에 비추어 보아야 할 터인데, 現代作家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文學을 다룰 때에는, 텍스트 가운데에 우리의 現代的 聯想이나 反應을 投射하고 그 가운데에서 當時에 아직 存在하지도 않던 文體論的 効果를 찾아내는 誤謬 즉 'errors of addition'(Riffaterre의 用語)과, 또한 過去에 존재했으나 그 뒤에 사라져 버린 文體論的 價値를 놓쳐버리는 誤謬 즉 'errors of omission'을 철저히 피해야 할 것을 語彙와 文法의 level로 나누어 作品例를 뽑아 喚起시키고 있다. 그 밖에 archaism을 정확히 認知하여 文體論的 再構에 寄與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古典硏究를 즐겨 靈感에 依存하려는 一部學者에게 큰 敎訓이 될 만한 論攷다.

第 9 章 The Nature of Imagery

Image는 특히 象徵主義運動 以來 詩人·作家들이 입을 모아 그 重要性을 강조해왔을 뿐 아니라 文體硏究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地, 水, 火, 空氣에 의한 metaphor의 分類主張(Bachelard)[9]의 例와 같이 그 類型論의 樹立도 試圖되었음을 前提하고, image를 가리켜 "相似나 類比를 나타내는 比喩"라고 하는 간단한 定義 아래 simile와 metaphor, 單純한 image와 靜的 혹은 動的 發展의 image등 그 形式에 대해 考察한 다음 Richards의 用語를 빌어 tenor, vehicle, ground, 그리고 tenor-vehicle 間의 관계에 따라 각각 image를 分類할 수 있다고 例示하고 있는데, 整然하고 包括的인 感을 준다. vehicle에 따른 分類의 보기 가운데 Sartre의 insect imagery는 想像的 디테일과 哲學的 主題의 融合이라는 美學的·哲學的 意義外에 그 心理的 背景도 考察될 수 있지만 心理的 動機가 자체로서는 흥미 있을지라도 그 imagery의 藝術的 價値나 Sartre의 思想傳達을 위한 有用性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tenor-vehicle 관계에 있어서는 Proust가 Odette에 대한 Swann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에 수많은 醫學 image를 썼다든가 또는 꽃을 少女로 少女를 꽃으로 묘사한 例를 들어 동원되는 두 經驗領域間의 相互關係를 살피고 있다. 다음 image가 作品의 內的 構造가운데 짜여져 遂行하는 機能을 여러모로 檢討하고 있다. 象徵으로 發展하는 image의 경우에는 作品全體를 통해 연거퍼 나타나면서 일종의 Wagner流의 leit-motiv 역할을 하게 되고 Gide의 *La Porte étroite, Les Nourritures terrestres* 처럼 作品의 標題로 까지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L'Etranger*의 Meursault이 激烈한 一連의 image를 통해서만 殺人의 유일한 動機를 나타내게 되는 것처럼 functional imagery로서의 強力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흥미있는 이러한 硏究가 言語學 本領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런지는 두고 볼 問題다.

第 10 章 Words and Concept

言語學, 人類學, 心理學, 哲學에서 줄기차게 문제가 되면서도 시원한 解決을 보지 못하는 言語와 思考의 관계를 범위를 좁혀 고찰하고 있다. 著者는 먼저 다른 學者들의 硏究를

---

[9] "loi des quatre éléments"으로 集約되는 Gaston Bachelard(1884~1963)의 詩的 想像力에 관한 現象學的 硏究는 佛蘭西에서 文學硏究批評에 深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宋 穆 敎授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宋 穆, 『想像世界의 哲學』(「新東亞」 1964년 12월호)參照.

빌어 aphasia가 思考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 'linguistic relativity'[10] 原理아래 人間을 母國語의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과장한 Whorf의 理論을 批判을 곁들여 끌어들이고 American Indian 語의 文法範疇가 아닌 「유럽」語 語彙의 歷史와 構造의 硏究에서 우러나온 lexical fields의 理論을 Sapir-Whorf 假說에 補充시켜 單語들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캐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經驗領域을 反映하는 field의 形成過程을 例示하고 일단 形成된 field는 後代에까지 傳授되어 注意를 支配한다는 점에서 言語 특히 語彙와 思考가 密接한 關聯下에 相互作用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限 Whorf 理論이 처음 나왔을때의 센세이션은 사라지고 可否 어느 쪽에 대해서도 確證을 못내리고 있는 現段階에서 Ullmann도 積極的인 解決策이나 주장을 내놓지 못한 결과가 된다.

第 11 章 Classical Influence on the Vocabulary of the French Renaissance

Learned term을 주로한 Latinism은 Renaissance 以前에도 佛語 語彙에 영향을 주었지만 14世紀부터 組織的으로 파고 들기 시작하여 16世紀에 絶頂을 이루는 한편 이때부터는 Hellenism도 大規模로 들어왔음을 말하고, 이러한 Classical influence가 佛語 語彙의 形態와 意味 그리고 文體上에 미친 結果를 分析하고 있다. *L'Etranger*와 *La Peste*의 序頭를 比較하여 佛語에는 native words를 주로 쓰는 具體的이고 單純하며 informal한 文體와 Graeco-Latin words를 많이 쓰는 抽象的이고 文語的이며, erudite한 文體의 두 갈래가 Renaissance 以後 생겼음을 보였다. 끝으로 英語에의 classical influence와 比較하여 佛語의 경우는 re-Latinization이기 때문에 homogeneity가 유지되나 英語에서는 단순한 Latinization으로서 많은 英國人들은 거기서 affected, pompous air를 느끼고 따라서 英文學에서는 joke의 샘이 되고 있다는 차이를 들고 있다. 이러한 影響關係는 대체로 首肯이 가는 考察이다.

이상 Ullmann이 提示한 方向과 問題들을 훑어 보았지만 言語學이 文學에 積極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餘地는 이밖에도 많다. 音韻論과 韻律學, 詩와 文法性, 'poetic licence', ambiguity 등, 두 分野는 目的이 다르기는 하지만 彼此 冷淡해야 할 사이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見地에서도 이 책은 言語學徒나 文學徒에게 다 같이 價値를 發揮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본다. 최근 變形-生成派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11]

(서울大學校 文理大)

---

[10]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Benjamin Lee Whorf*, ed. by J.B. Carroll (MIT, 1956), p. 212 ff. 參照.

[11] H.G. Lunt 編 前揭書中 'Poetry and Grammaticalness'와 J.P. Thorne, 'Stylistics and Generative Grammars,' *Journal of Linguistics* (1965), pp. 49-59 및 Richard Ohmann, 'Generative Grammars and the Concept of Literary Style', *Word* 20 (1964), pp. 423-439 등 參照.

▲ 附記 : 拙稿 印刷途中에 到着한 *Language* 42:3(*Sept* 66)에는 마침 本書에 대한 Dr. Householder의 書評이 실려 있는데 言語學者의 立場에서 客觀性의 問題를 尺度로 하여 대단히 銳利한 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순전한 文學 問題에 대해서는 言及을 避하고 있다.